

초대교회와 중세기의 전례문헌에 따르면
주교가 사제단이 입회한 미사중에
제단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여자에게도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써
부제로 서품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들은 성작에서 직접 성혈을 마시고;
주교가 어깨에 영대를 걸어주었다.
이들은 부제라 불리어졌고
이들은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말씀과 전례, 자선활동등 봉사직을 행하였다.

초대교회와 중세기의 전례문헌에 따르면
주교가 사제단이 입회한 미사중에
제단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여자에게도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써
부제로 서품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들은 성작에서 직접 성혈을 마시고;
주교가 어깨에 영대를 걸어주었다.
이들은 부제라 불리어졌고
이들은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말씀과 전례, 자선활동등 봉사직을 행하였다.

초대교회와 중세기의 전례문헌에 따르면
주교가 사제단이 입회한 미사중에
제단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여자에게도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써
부제로 서품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들은 성작에서 직접 성혈을 마시고;
주교가 어깨에 영대를 걸어주었다.
이들은 부제라 불리어졌고
이들은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말씀과 전례, 자선활동등 봉사직을 행하였다.

초대교회와 중세기의 전례문헌에 따르면
주교가 사제단이 입회한 미사중에
제단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여자에게도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써
부제로 서품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들은 성작에서 직접 성혈을 마시고;
주교가 어깨에 영대를 걸어주었다.
이들은 부제라 불리어졌고
이들은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말씀과 전례, 자선활동등 봉사직을 행하였다.

초대교회와 중세기의 전례문헌에 따르면
주교가 사제단이 입회한 미사중에
제단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여자에게도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써
부제로 서품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들은 성작에서 직접 성혈을 마시고;
주교가 어깨에 영대를 걸어주었다.
이들은 부제라 불리어졌고
이들은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말씀과 전례, 자선활동등 봉사직을 행하였다.

초대교회와 중세기의 전례문헌에 따르면
주교가 사제단이 입회한 미사중에
제단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여자에게도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써
부제로 서품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들은 성작에서 직접 성혈을 마시고;
주교가 어깨에 영대를 걸어주었다.
이들은 부제라 불리어졌고
이들은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말씀과 전례, 자선활동등 봉사직을 행하였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미 부제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부제직의 성사적 은총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 함은 당연하므로 “
부제직을 영구직으로 복구시켰다.
현재 교회의 많은 여신도들이
부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제직은 사제직과 구별되는 봉사직으로
여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미 부제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부제직의 성사적 은총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 함은 당연하므로 “
부제직을 영구직으로 복구시켰다.
현재 교회의 많은 여신도들이
부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제직은 사제직과 구별되는 봉사직으로
여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미 부제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부제직의 성사적 은총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 함은 당연하므로 “
부제직을 영구직으로 복구시켰다.
현재 교회의 많은 여신도들이
부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제직은 사제직과 구별되는 봉사직으로
여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미 부제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부제직의 성사적 은총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 함은 당연하므로 “
부제직을 영구직으로 복구시켰다.
현재 교회의 많은 여신도들이
부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제직은 사제직과 구별되는 봉사직으로
여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미 부제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부제직의 성사적 은총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 함은 당연하므로 “
부제직을 영구직으로 복구시켰다.
현재 교회의 많은 여신도들이
부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제직은 사제직과 구별되는 봉사직으로
여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미 부제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부제직의 성사적 은총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 함은 당연하므로 “
부제직을 영구직으로 복구시켰다.
현재 교회의 많은 여신도들이
부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제직은 사제직과 구별되는 봉사직으로
여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